

*What Youth Workers Need to Know About Asian American and Pacific Islander (AAPI)  
Heritage Month*

청년 사역자가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 섬주민 문화 유산의 달에 대해 알아야 할 것

DANNY KWON | MAY 22, 2023

A well-known African American comedian commented that “every month is Black History Month for me.” The idea of ignoring his people for 11 months and then celebrating Black history for one month does sound a little ridiculous.

잘 알려진 아프리카계 미국인 코미디언은, “나에게는 모든 달이 흑인 역사의 달입니다.”라고 했습니다. 11개월 동안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신경 쓰지 않다가 한 달만 흑인 역사를 기념하는 것은 조금 황당하게 들리긴 합니다.

While I don’t share his skepticism, I think it is important during Asian American and Pacific Islander (AAPI) Heritage Month to at least bring some awareness and light to the AAPI community as we seek to love and minister to teenagers. As churches and youth ministries, we want to be able to **serve our teenagers** and families of the AAPI community all 12 months of the year. This can mean anything from **serving in AAPI ethnic churches** and **youth ministries**, to church contexts where you might serve just a few AAPI teenagers, to ministering to a teenager who is an adoptee from an AAPI country. Perhaps your church is serving refugee families from an AAPI community. We seek to minister in light of the reality that the demographic landscape in America is changing, and ethnic minorities are now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in America.

저는 그의 회의론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적어도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 섬주민 (AAPI) 문화유산의 달 동안은, 우리가 청소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할 때 AAPI 커뮤니티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키고 조명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와 청소년 사역자로서 1년 12개월 내내 이 커뮤니티의 청소년과 가족들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작게는 아시아-태평양계 소수 민족 교회와 청소년 사역에서 섬기는 것부터, 소수 아시아-태평양계 십대를 섬기는 사역, 그리고 아시아-태평양계 나라 출신의 입양아를 섬기는 일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어쩌면 이미 아시아-태평양계 커뮤니티의 난민들을 돕고 있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소수 민족이 미국의 주요 인구층이 되어버린 것처럼, 미국의 인구통계학적 지형이 변하고 있는 현실을 사역에 감안해야 합니다.

So, what do we need to know about AAPI communities and how can this help us as we serve AAPI teenagers and families?

### What does AAPI mean and What Are Some Implications From That?

그렇다면 아시아-태평양계 청소년들과 가족들을 섬기기 위해 이 커뮤니티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고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아시아-태평양계는 무엇이며 어떤 뜻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The AAPI community is not just one large clump of people. Even people of AAPI heritage often do not like being grouped into this one large people group. In fact, the communities celebrated during AAPI Heritage Month have origins in the many countries that the Asia-Pacific region encompasses. These includes the Asian continent, the Pacific Islands of Melanesia (ie- New Guinea, New Caledonia, Vanuatu, Fiji, and the Solomon Islands), Micronesia (Marianas, Guam, Wake Island, Palau, Marshall Islands, Kiribati, Nauru, and the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and Polynesia (New Zealand, Hawaiian Islands, Rotuma, Midway Islands, Samoa, American Samoa, Tonga, Tuvalu, Cook Islands, French Polynesia, and Easter Island). As AAPI communities are spread over such a large geographical area, the Asian American and Pacific Islander community has rich and varied people groups, each with their distinct histories and cultures. Likewise, the acronym comes with slight variations such as APA (Asian Pacific Islander) or AANHPI (Asian American, Native Hawaiians, and Pacific Islanders).

아시아-태평양계 커뮤니티는 그저 하나의 큰 집단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들 자신도 단순히 하나의 큰 그룹으로 묶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아시아-태평양계 커뮤니티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포함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에 기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시아 대륙, 멜라네시아 태평양 제도(뉴기니, 뉴칼레도니아, 바누아투, 피지, 솔로몬 제도), 미크로네시아(마리아나, 괌, 웨이크섬, 팔라우, 마셜 제도, 키리바시, 나우루, 미크로네시아 연방), 폴리네시아(뉴질랜드, 하와이 제도, 로투마, 미드웨이 제도,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통가, 투발루, 쿡 제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이스터섬)이 포함됩니다. 아시아-태평양계 커뮤니티들이 이렇게 지리적으로 넓게 퍼져있기 때문에, 각각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풍부하고 다양한 그룹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APA (아시아-태평양 섬 주민) 또는 AANHPI(아시아계 미국인,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섬 주민)과 같이 다른 약자의 형태도 지니고 있습니다.

Even as an American citizen with a Korean ethnic heritage, I admit that I still have a lot to learn about many of the distinct people groups who fall under the AAPI people groups.

한국인 혈통인 미국 시민인 나로서도 이 아시아-태평양계라는 범주 안에 있는 인구 그룹에 대해서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Ultimately, it is important for youth workers and churches to know is there is a great variety of **distinct and diverse communities** within AAPI communities. If a person of Asian descent walks into your church or youth group with a friend, you cannot assume what people group within all the AAPI communities they belong to. In fact, you can't even assume just because of the way they look, if they speak English or not, have a personal cultural and ethnic connection with their own AAPI community, or perhaps whether they are more assimilated into Western culture or not. It would be silly for a you as a youth worker to ever assume you know anything about a student's interests, hobbies, or music preferences, without ever talking with them, getting to know them, and hearing their story. The same is true with any AAPI person.

결국 청년 사역자들과 교회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은 바로 아시아-태평양계 커뮤니티 안에 매우 다양하고 구별되는 공동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시아계 혈통의 사람이 친구와 함께 당신의 교회나 청소년 그룹에 들어온다면, 그 사람이 어떤 아시아-태평양계의 그룹에 속했는지 추측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외모나 영어를 사용하든 하지 않든, 자신이 속한 아시아-태평양계 커뮤니티와 개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아닌지, 혹은 서양 문화에 더 동화되었는지 아닌지를 통해서 추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청년 사역자로서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에 대해 배워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의 관심사 나 취미, 혹은 음악 취향에 대해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 Youth Ministry IS Cross- Cultural

청소년 사역은 문화를 초월해야 합니다.

As a youth pastor for 29 years at my last church, I always told my younger youth pastor interns that youth ministry, by definition, is across culture. In fact, I taught a seminary class for years called "Youth Ministry Across Culture."

지난 29년간 섬겼던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젊은 인턴들에게 청소년 사역은, 뜻 그대로, 문화를 넘는 것이라고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신학교에서도 수년간 "문화를 초월한 청소년 사역"이라는 수업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One of the main points of the course was that as youth workers, we are in many ways like cross-cultural missionaries. We enter in the social-cultural worlds of our students to love them and to **contextualize with them** for the sake of the gospel. With any teenager, AAPI or of another cultural heritage, we should seek to know them for who they are, and to learn about their lives, as we ultimately seek to share and disciple them in the gospel.

이 수업의 주요 요점 중 하나는 청소년 사역자로서, 우리는 문화를 초월하여 사역하는 선교사와 매우 닮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생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며** 그들이 속한 사회문화적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시아-태평양계이든 다른 문화권이든, 우리는 청소년들을 알고 그들의 삶에 대해 배우려고 노력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서 제자로 삼으려고 해야 합니다.

For students or families of AAPI ethnic heritage, or any diverse cultural heritage, such as African American, Hispanic, or white, cross-cultural youth ministry might mean to taking interest, recognizing, being sensitive to, or understanding and appreciating another's ethnic heritage, cultural context, and historical background. Some teenagers I have ministered to are more attuned to their ethnic and cultural heritage, and some are not. It is important with any teenager to grow in our skills for effectively loving and serving them as individuals, which may or may not include effectively serving and helping their cultural or ethnic needs if ministering to them calls for it. Overall, I would just hope as youth workers, we would just increase our sensitivity to diversity, cultures, and ethnicities, for the sake of gospel ministry.

아시아-태평양계 민족이나, 아프리카계 미국인, 히스패닉, 혹은 백인과 같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과 가정들을 위해, 문화를 초월한 청소년 사역이란 관심을 갖고, 인정해 주며, 세심하게 대하면서, 서로의 민족적 유산, 문화적 상황과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섬겼던 일부 청소년들은 그들의 민족적 문화적 배경에 더 맞춰서 살고 있었고 일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청소년을 한 개인으로 효과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기술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그들의 문화적 또는 민족적 필요를 효과적으로 섬기고 돕는 것을 포함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청소년 사역자로서, 복음 사역을 위해 우리가 다양성, 문화, 그리고 민족성에 대한 민감성을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Ultimately, whether it be seeking to understand the diversity within each unique AAPI person or seeking to **minister to AAPI teenagers** "cross-culturally," in the Great Commission the gospel calls for us to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As we share the gospel with AAPI teenagers (and all teenagers), the good news of Jesus assures us that

we are all adopted children of God through his grace and mercy on the cross. AAPI teenagers (and every teenager), through the power of the gospel in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can join the family of God. Thus, let us love and care for one another, and seek to love our AAPI teenagers (and every teenager), for the sake of the gospel.

결론적으로 각각의 고유한 아시아-태평양계 사람에 대한 다양성을 이해하고 **문화를 초월하여 아시아-태평양계 청소년들에 대한 사역**을 하던지, 복음의 지상명령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아시아-태평양계 청소년(그리고 모든 청소년)에게 복음은 예수님의 기쁜 소식은 우리 모두 십자가에서 보인 그의 은혜와 자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확증합니다. 아시아-태평양계 청소년(그리고 모든 청소년)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 서로를 사랑하고 보살피며, 아시아-태평양계 청소년(모든 청소년)을 사랑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 The Burden of Recent Violence Against AAPI Communities

아시아-태평양계 커뮤니티들을 향한 폭력의 부담

Finally, while there is so much more to say about AAPI teenagers and families, I think it is worth closing this short article by making others aware of an important issue to the AAPI community.

마지막으로 아시아-태평양계 청소년들과 가족들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아시아-태평양계 커뮤니티에 대해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을 높이면서 이 짧은 글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specially in response to Covid,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harassment and violence against the AAPI community over the last few years. AAPI Heritage month gives us an important opportunity to acknowledge the harassment, violence, and discrimination that AAPI individuals and communities have faced throughout this most recent time period, but also in U.S. history. Learning about this more recent history during Covid, as well as other historical events of discrimination that AAPI people have faced, is an important part of stopping **racial discrimination** and creating a more accepting future.

특히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하여 지난 몇 년간 아시아-태평양계 커뮤니티에 대한 괴롭힘과 폭력이 증가해 왔습니다.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의 달은 우리에게 최근에, 그리고 미국 역사 가운데, 아시아-태평양계 사람들과 커뮤니티들이 당해온 괴롭힘과, 폭력

및 차별을 인정할 기회를 줍니다. 아시아-태평양계 사람들이 겪어온 코로나 기간의 최근의 역사와 그외 차별의 역사를 배우는 것은 인종차별을 멈추고 더욱 수용적인 미래를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This awareness might help us to understand and serve families and teenagers from the AAPI communities in greater love and compassion. The fear, devastation, and trauma of gun violence in our country is real for many. Likewise, the recent **harassment and violence** against the AAPI community that arose during Covid has impacted many teenagers and families in the AAPI community in a difficult way, often resulting in fear and trauma. As Christians, we can be more aware of the struggles of the AAPI communities during these recent times and can respond to their fears and traumas with the grace and love of Jesus Christ.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더욱 큰 사랑과 긍휼함을 가지고 아시아-태평양계 커뮤니티의 가족과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총기 폭력에 대한 두려움, 황폐함과 트라우마는 많은 이들에게 현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기간에 발생한 아시아-태평양계에 대한 괴롭힘과 폭력은 이 커뮤니티의 청소년들과 가족들에게 어려움을 줬고 두려움과 트라우마를 초래하였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아시아-태평양계 커뮤니티의 어려움에 대해 더 자각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과 트라우마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Danny Kwon, Ph.D., serves as the Senior Director of Youth Ministry Content and Cross Cultural Initiatives for Rooted Ministry. Before joining Rooted, Danny Kwon served as Youth and Family Pastor at Yuong Sang Church, a bicultural, bilingual Korean-American congregation outside Philadelphia for 29 years. He is married to Monica, a Christian counselor and psychologist, and they have three children. He has authored three books, including *A Youth Worker's Field Guide to Parents: Understanding Parents of Teenagers*, and *Mission Tripping: A Comprehensive Guide to Youth Ministry Short Term Missions*. He also serves as an adjunct professor of Youth Ministry at Eastern University, is a certified ministry coach, has contributed to various publications, spoken at ministry conferences across the world, and has mentored 28 youth ministry pastoral interns over the years at his church. Danny holds graduate degrees from Westminster Seminary, Covenant Seminary, and Eastern University. His doctoral dissertation focused on innovation theory and intergenerational youth ministry paradigms in the local church. He enjoys sports, eating, reading, and making people laugh, and now is a youth ministry volunteer in his local church.



Danny Kwon 박사는 Rooted Ministry의 청소년 사역과 다문화 사역주도 부서의 수석 디렉터입니다. Rooted 사역에 함께하기 전에는 필라델피아 근교 이문화/이중언어, 한국계 미국인 회중의 영생교회에서 청소년 가족 담당 목사로 29년을 섬겼습니다. 성경적 상담사이며 심리학자인 Monica 사모와 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Danny Kwon 박사는 *A Youth Worker's Field Guide to Parents: Understanding Parents of Teenagers*와 *Mission Tripping: A Comprehensive Guide to Youth Ministry Short Term Missions* 등 3개의 저서가 있습니다. 또한 Eastern 대학교에서 청소년 사역부서의 겸임교수로 섬기고 있으며 인증받은 사역 코치로서, 다양한 출판물에 기고하였고, 세계 각자의 사역 컨퍼런스에서 강연해 왔으며 지난 교회에서 28명의 청소년 사역 인턴 목사들을 멘토링 하였습니다. Danny Kwon 박사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Covenant 신학교와 Eastern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의 박사 논문은 지역 교회의 혁신 이론과 세대 간 청소년 사역의 패러다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운동과 음식, 독서와 사람들을 웃게 하는 것을 즐기며 현재 지역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